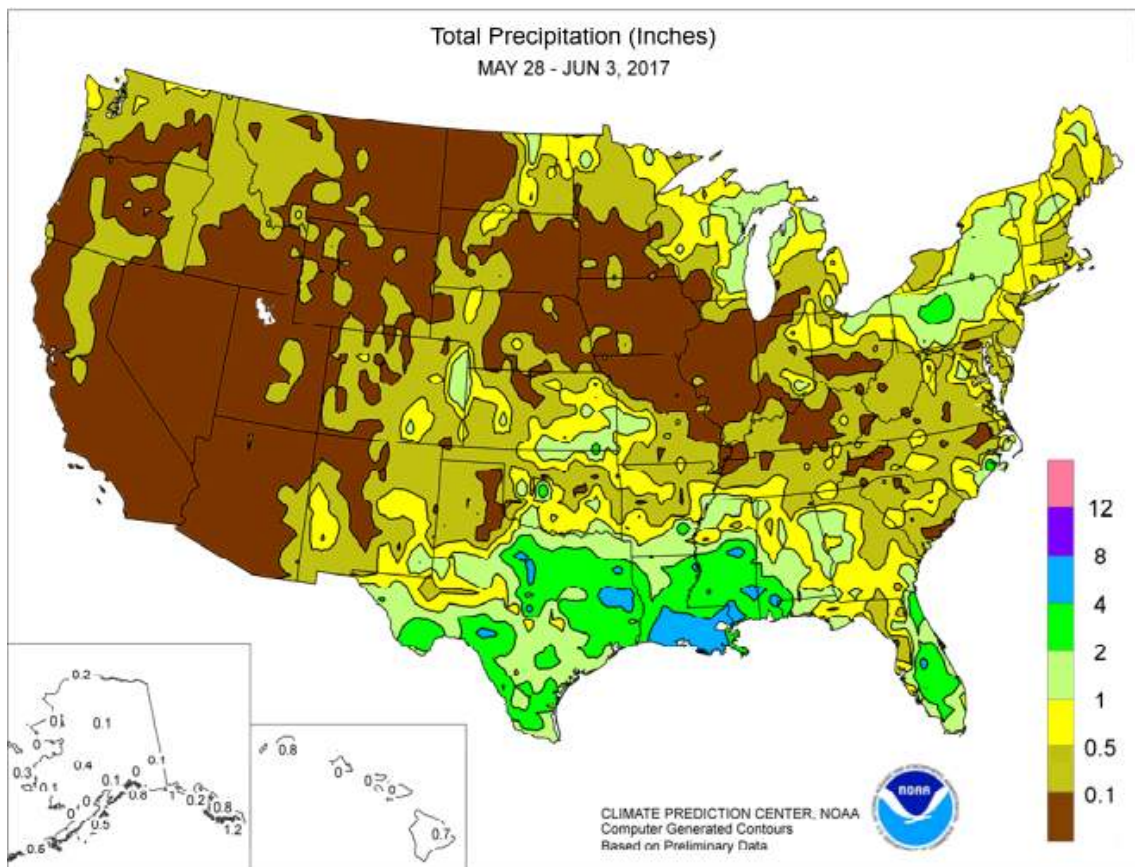


6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23)

□ 미국 기후 현황(5/28~6/3)

중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고, 대두와 옥수수 파종작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반면, 북동부 일대에서는 서늘한 날씨를 보였고 때때로 비가 내렸다.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걸프만 연안 중부지역에서는 2~4인치 내외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중부와 남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겨울밀 수확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북부 평원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코타 지역에서는 6월 초에 벌써 기온이 100°F 가까이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서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산간지역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으며, 농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북서부 내륙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5/29~6/4)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보였고, 북서부 일대에서는 최소 6°F 이상 기온이 높았다. 반면, 뉴 잉글랜드와 남부 평원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날씨를 보였다. 서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농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텍사스 일부 지역과 Delta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5/28~6/3)

■ 유럽: 대체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스페인과 프랑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오르내렸다. 북부지역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리기도 했고, 프랑스 남서부에서는 25~7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잉글랜드, 프랑스 북부, 독일, 폴란드 서부 등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리스 등 남부 지역에서도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Danube 강 중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 작물들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반면, 스페인 남동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에서는 반가운 비가 내렸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의 남부와 동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도 평년에 비해 2°C 정도 높았다. 우크라이나 북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2~14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러시아에서는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남부와 Caucasus 지역에서는 겨울밀의 개화가 시작되었다. 보더 북부의 Volga 지역 및 벨라루스 동부 등에서도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올랐고, 양쯔강 북부에서는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북동부의 Heilongjiang, Jilin, Liaoning, 내몽고 등의 지역에서도 가뭄이 발생했다. 하지만, 5월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덕분에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양쯔강 남부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일본 남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반면, 일본 북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남호주, 빅토리아주 북부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흩뿌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퀸즐랜드 남부, 서호주 등에서는 이례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동부 일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고, 서호주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중부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 및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북서부의 Cordoba 북부, Salta 북부 등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겨울밀 파종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Santa Fe 북부와 Formosa 등 동부의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고, 밤 동안에는 Cordoba, Jujuy 등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46%, 8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 느린 편이다.

■ 브라질: 중부 일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남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Parana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등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9일 기준 2모작 옥수수 재배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filling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수확률은 1%이다.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는 100~2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5일 기준 밀 파종률은 3%이며, 이 시기의 평균 파종률인 30%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치이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 중부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동부 해안 일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